

‘파리올림픽 사격 25m 금’ 양지인의 포부

“앞으로 출전한 모든 대회 태극기 가장 높이 올리고파”

‘어떻게든 되겠지’ 편한 마음에 위기 넘겨
‘국대 선발전 · 아시안게임 준비 매진할 것’

“앞으로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태극기를 가장 높이 올리고 싶어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사격 25m 권총 금메달리스트 양지인(21·한국체대) 선수는 “2년 뒤 아시안게임과 4년 뒤 올림픽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제54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가 열린 전남 나주 전남국제사격장에서 만난 양 선수는 “종목이 달라도 사격 선수들끼리 엄청 친했다”며 “대표팀 안에서 서로 응원해주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양지인 선수는 금사로만 치러지는 25m 권총 결선에서 10시리즈까지 37점으로 카밀 예드제예스키(프랑스)와 동률을 이뤘다. 슈트프에 들어가는 점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 속에서도 동료들의 응원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게 양지인의 설명이다.
파리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양 선



20일 전남 나주 국제사격장에서 양지인 선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수는 전국사격대회와 2025년 국가대표 선발전 경기를 준비하느라 아직 집에 가지 못했다. 금메달도 아직 대학 기숙사에 보관하고 있다.
양 선수는 “첫 출전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해 너무 행복하다. 누

구보다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다면서 좋아하셨다”며 “제가 운동을 하는 동안 뒤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며 저 못지 않게 고생을 하셨다. 얼른 집에 가서 부모님께 금메달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다.
멘탈 관리가 중요한 종목이 사격이다. 양지인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슈트프에 들어가는 긴장 속에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자신의 성격을 예로 들었다.
양 선수는 “사실 특별히 멘탈 관리를 하는 것은 없다. 그냥 거기에 서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위기도 잘 넘긴 것 같다”며 웃었다.
양지인은 올림픽 이후 다음 대회 준비는 물론 각종 행사 참석과 방송 출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이제부터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고 2년 뒤 있을 아시안게임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했다.
양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을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며 “다가올 아시안게임과 4년 뒤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



20일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강당에서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일곱번째)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신임 김 이사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문성 · 행정력 바탕으로 더욱 더 성장”

김중헌 신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취임

태권도진흥재단 제7대 김중헌 이사장이 20일 취임식을 가졌다.
20일 10시,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강당에서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 운영관리(주, 이하 자회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취임사, 상견례 등의 일정으로 취임식을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 취임하게 되어 영광이면서 어깨가 무겁다”라며 “태권도진흥재단 임직원들은 최고의 전문성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그리고 태권도계와 협업을 통해 더욱더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구어해야 할 것임이 있더라도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은 두 배 · 세 배의 노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서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있어 부서장 이상 간부 직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책임도 명확히 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직원들에게는 “멋진 무주의 자연환경에서 근무하지만 교통과 문화, 의료 등에 있어 다소 열악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 직원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씩 챙기면서 정주 여건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애사심과 동료애가 증진되고 더욱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모든 재단 임직원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며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사장이 앞장서고 튼튼한 방패가 되겠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가 태권도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친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늘 함께 하겠다. 지회사와의 끈끈한 믿음과 협력으로 태권도원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직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가운데 소통과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는 언제든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중헌 이사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용인대학교 교수·국제교류교육원장,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품새 기술위원, 아시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대한무도학회 수석부회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한편, 취임식에 앞서 19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서 임명식을 가졌다. 향후 국가원,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태권도 주요 단체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등 유관 기관을 찾아 상호 협력과 발전 및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자치도,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첫 종합우승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 우승
FC 온라인은 준우승 차지



‘제16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이하 KeG) 전국 결선에서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이끈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선수단이 최초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제공)

‘제16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이하 KeG) 전국 결선에서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이끈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선수단이 최초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 e스포츠 협회에서 주관한 충남 아산에서 17~18일 양일간 개최된 이번 KeG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식 종목(리그 오브 레전드, FC 온라인) 모두 결선에 진출하여 종합점수 163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종합 우승 트로피와 대통령상을 품에 안았다.
FC 온라인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문신권 선수가 경남 제황담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밴의 머리 팀이 인천광역시 상대로 치열한 공방 끝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당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1세트 경기를 26분 만에 패배하며 당황했으나, 이어진 2세트에서 인천광역시와 치열한 접전 끝에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마지막 3세트에서는 강한 집중력과 역전의 분위기를 그대로 몰아 최종 한타까지 승리한 전

북이 KeG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에 등극하며 종합우승까지 거머쥐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진흥원은 지난 8월 3일 전북지역 대표 선발전을 통해 7명(리그 오브 레전드 5명, FC 온라인 2명)의 선수단을 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단은 지난 대회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준우승으로 마무리하며 종합 성적 5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주간의 프로젝트 게임 전문 교육기관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강화, 결선 대

비 컨디션 집중관리 및 지원을 통해 전국 결선 제패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 김성규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해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에서 첫 종합우승을 차지한 우리 선수단이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지역에서 이와 같은 선수들을 양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스포츠와 게임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백제왕도 익산 전국생활체육 유도대회 성료

선수 등 2000여명 참여... 올림픽 메달리스트 허미미 등 사인회

익산시에서 전국 규모의 유도대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며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 백제왕도 익산 전국생활체육 유도대회’에는 선수와 관계자 등 2000명 이상이 방문했다.
대한유도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유도회와 익산시유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유치부부터 일반부까지 참여한 대회로, 16~17일은 개인전이 18일은 단체전이 진행됐다.
이에 앞선 14~15일에는 ‘2024 하계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에 200여 명이 참석해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대회 첫날인 16일에는 제33회 파리 올림픽 유도 여자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의 사인회가 열리기도 했

다. 17일에는 유도 혼성 단체전 동메달리스트 안바울 선수의 사인회가 진행됐다.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으로 알려진 허미미 선수는 이번 파리올림픽 유도 여자 57kg 이하급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파리올림픽 유도 혼성 단체전 마지막 주자로 나선 안바울 선수는 동메달 획득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사인회가 열린 이틀간 대회에 참가한 10대 끝나무 선수들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약 1,000명 이상이 몰리며 유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익산=이재훈 기자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제28회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2024. 8/31(토) - 9/8(일)

무주반딧불축제

주최: 무주군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주관: 무주자연생태관광진흥회 주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재단

문의: 0631324-2440